

Global Trade Report

2019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19 수출전망 / 2

II.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 5

5	1. 북미
8	2. 중국
11	3. EU
14	4. 일본
17	5. ASEAN·오세아니아
22	6. 인도
25	7. 중동
28	8. 중남미
31	9. CIS
34	10. 아프리카

요 약

□ (총괄) 2019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282억 달러 전망

- 우리나라 수출은 '17년 플러스 반등, '18년 6,000억 달러 최초 돌파 후 '19년에도 증가세 지속 전망

* 수출증감율 : ('16) △5.9% → ('17) 15.8% → ('18) 5.5% → ('19e) 3.8%

- 다만,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낮을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억 달러, %) >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737	15.8	6,052	5.5	6,282	3.8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주재상사 등 74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중동(△5.4) 제외 대부분 시장이 플러스 증가율 예상되며, 신흥시장(아세안, 인도)은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높은 성장

- (선진·주력시장) 中·美·日 등 주력시장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아세안은 안정적 성장세 유지 전망

북미(2.6%)	경기 성장세 지속, 금리 인상 등으로 속도 둔화
중국(4.3%)	소비, 투자 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 대외개방 및 수입확대
유럽(2.4%)	낮은 실업률, 내수 확대 등 대내여건 호조 및 유로화 절상
일본(3.6%)	소비세 인상 및 설비투자 둔화 등 여건 악화, 엔저 효과
아세안(6.3%)	안정적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및 우리기업 진출확대 효과

- (신흥시장) 중동지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서 수출 증가 전망

인도(10.9%)	대외수입 규제 강화 추세이나 제조업중심의 경제성장세
중남미(3.4%)	정치적 리스크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중동(△5.4%)	인프라 투자 확대(유가 혼조), 對이란제재 영향 본격화
CIS(4.0%)	제조업 육성정책 및 경제개혁 영향으로 경제성장 호조

< KOTRA, '19년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망 (%) >

세계	북미	중국	유럽	일본	ASEAN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3.8	2.6	4.3	2.4	3.6	6.3	3.6	10.9	△5.4	3.4	4.0	2.6

주: 기타지역(대만, 노르웨이, 마셜제도 등) 제외

I 2019 수출 전망

□ (총괄) 2019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282억 달러 전망

- 우리나라 수출은 '17년 플러스 반등, '18년 6,000억 달러 최초 돌파 후 '19년에도 증가세 지속 전망

* 수출증감율 : ('16) △5.9% → ('17) 15.8% → ('18) 5.5% → ('19e) 3.8%

- 다만,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낮을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737	15.8	6,052	5.5	6,282	3.8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주재상사 등 74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주요 기관들은 '19년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을 전년 대비 다소 낮은 3.3%~4.0%로 전망

* IMF('18.10월): ('18e)4.2% → ('19e)4.0%, WTO('18.9월): ('18e)3.9% → ('19e)3.7%
OECD('18.11월): ('18e)3.9% → ('19e)3.7%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전년 대비 둔화된 2.4%~5.0%로 전망

IMF('18.10월) 3.4%	OECD('18.11월) 4.5%	국회 예산정책처('18.10월) 2.4%
한국은행('18.10월) 3.2%	LG경제연구원('18.9월) 4.1%	현대경제연구원('18.12월) 3.7%
무역협회('18.11월) 3.0%	포스코경영연('18.12월) 2.8%	한국수출입은행('18.11월) 4.0-5.0%

□ (지역별) 중동(△5.4) 제외 대부분 시장이 플러스 증가율 예상되며, 신흥방지역(아세안, 인도)은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높은 성장

- (선진·주력시장) 中·美·日 등 주력시장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아세안은 안정적 성장세 유지 전망

- (북미) 경기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인상으로 성장속도 둔화 우려, 보호무역 기조의 영향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 전망

- (중국) 소비, 투자 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되나, 부품·소재 및 첨단 기술 협력수요 증가, 대외개방과 수입확대 등으로 4.3% 증가 전망

- (유럽) 낮은 실업률, 내수 확대 등 대내여건 호조 및 유로화 절상, 한국산 품질 인지도 개선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 전망
 - (일본) 소비세 인상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 시장여건 악화와 엔저 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된 **3.6%** 전망
 - (아세안) 안정적 경제성장, 산업인프라 투자 및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소비재 및 부품·기계류 수입 증가로 연계, 수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 전망
- (신흥시장) 중동지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서 수출 증가 전망
- (인도) 대외수입 규제 강화 추세이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세, 한-인도 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 전망
 - (중남미) 정치적 리스크 완화, 물가안정 등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한-중남미 新FTA 확대로 수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 전망
 - (중동)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시장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영향이 본격화되어 수출은 **5.4% 감소** 전망
 - (CIS) 제조업 육성책, 경제개혁으로 경제 성장 호조, 수출은 **4.0% 증가** 전망

< 2019년 지역별 수출 전망 >

(단위: 억 달러, %)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금액	증감률	수출비중	금액	증감률	수출비중
전 세계	5,737	6,052	5.5	100%	6,282	3.8	100%
중국	1,421	1,622	14.1	26.8	1,691	4.3	26.9
아세안	952	1,002	5.2	16.6	1,066	6.3	17.0
북미	733	785	7.0	13.0	805	2.6	12.8
EU	540	577	6.7	9.5	591	2.4	9.4
일본	268	306	14.0	5.1	317	3.6	5.0
중남미	281	278	-1.1	4.6	287	3.4	4.6
중동	304	275	-9.5	4.5	260	-5.4	4.1
인도	151	156	3.7	2.6	173	10.9	2.8
대양주	287	142	-50.5	2.3	147	3.6	2.3
CIS	92	108	17.5	1.8	113	4.0	1.8
아프리카	77	66	-14.7	1.1	67	2.6	1.1

주: 기타지역(대만, 노르웨이, 마셜제도 등) 제외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74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2019년 지역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19년 수출 전망											
	종합	북미	중국	EU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지역별 종합												
일반기계 (71,72,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DP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 기기(812)												
가전 (82)												
컴퓨터 (813)												
섬유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대폭 증가(10% 이상)



소폭 증가(3~10%)



현행 유지(0~3%)



소폭 하락(0~△10%)



대폭 하락(△10% 이상)

*자료: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744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북 미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2.6%	2018년	785억(13.0%)
		2019년(e)	805억(12.8%)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으로 '19년에도 견고한 경기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인상으로 성장속도 둔화 우려,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752	11.7
2015	745	-0.9
2016	713	-4.3
2017	733	2.8
2018	785	7.0
2019	805	2.6

▶ 호조품목 일반기계,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컴퓨터, 선박류
▶ 부진품목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가. 2019년 시장여건

□ '19년 미국 2.5%, 캐나다 2.0%의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

- (미국)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18년 법인세 감세 및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기업투자와 소비 확대, 인프라 투자 본격화 등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지속
 - 낮은 실업률, 양호한 경제성장률로 인한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의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 성장률 둔화요인으로 작용 전망
 - * 실업률(%): ('15)5.3→('16)4.9→('17)4.4→('18e)3.9→('19e)3.5
 - * 연준은 '18년 1.50~1.75%에서 2.25~2.50%로 4차례 금리 인상, '19년 2차례 금리인상 전망
 - 통상마찰 장기화와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는 경제성장 저해
 - * 감세정책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19년 4.6%로 확대 전망 ('18년 3.8%)
- (캐나다) 내수경기 진작, 수출 증가세 등 성장 모멘텀 유지로 GDP 2.0% 성장 전망
 - 고용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기업 설비투자 확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 일부 해소

< 북미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미국	2.2	2.6	2.9	1.5	2.2	2.9	2.5
캐나다	2.5	2.9	1.0	1.4	3.0	2.1	2.0

* 자료: IMF('18.11월)

나. 2019년 수출환경**□ (미국)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수입규제 확대 등 통상리스크 주의**

- (對中정책)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감소 우려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품 및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관세부담 및 제품가격 상승 우려
 - 다만, 바이어의 중국 공급선 대체 수요 발생은 긍정적 효과
 - * 디스플레이, 휴대폰·부품, 조선 등 對中 관세부과 품목 중심 수출 증가 기대
 - 미·중 정상회담('18.12.1.) 시 합의한 추가관세 유보기한('19.3.1.) 내 협상 타결여부에 주목
- (수입규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 검토 중
 -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 타격 우려
 - * 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일정: (~'19.2.16)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조사결과 보고, (보고 후 9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 최종 결정, (결정 후 15일 이내) 조치 시행

□ (캐나다) 한-캐 FTA의 관세철폐 품목수 증가로 수출시장 확대 전망

- '19년부터 한국산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 신발 등 무관세 적용
 - 다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잠정발효('18.12.30)로 일본, 베트남산 제품 등 관세 인하, 한-캐 FTA 효과 희석 우려
- 철강,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식품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캐나다는 '18.10.25일부로 수입산 철강재에 세이프가드 발효
 - * 세이프가드가 유지될 경우 4년간 수입규제 적용('19.5월 조사결과 발표 예정)
 - USMCA로 역내부가가치 기준 상향조정(62.5%→75%)되며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캐나다 진출여건 악화
 - 신규 의료기기 품질평가제도 전환('19.1.1.) 식품안전법 발효('19.1.15.) 등 비관세장벽 강화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컴퓨터,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미중 통상분쟁의 긍정적 파급효과로 기계 산업 수요가 확대될 것이나, 건설경기 악화 및 전후방 관련 산업의 무역 제재로 수출 소폭 증가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철강제품 면제 신청으로 수출 물량 확대 예상 * 18.9월 美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철강제품에 선별적인 쿼터 완화를 허용하는 'Targeted Relief'에 서명, 특정제품 면제 신청이 가능해짐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미국 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5G용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미국 서버시장의 성장 기조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 (SEMI 보고서)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캐나다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미국, 보호무역에 따른 관세 부과로 시장 수요 정체 예상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및 하이엔드 컴퓨팅 시스템 수요 확산으로 SSD(Solid State Drive)시장 확대 예상
선박류 (746)	소폭증가 (3~10%)	○ 미국 기업의 LNG선 16척 발주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 중에 있으며,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소폭감소)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21)	소폭감소 (0~-10%)	○ 캐나다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으로 수입 수요 감소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감소 (0~-10%)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타결 인한 역내 부품 조달 수요 증가 및 통상 리스크 확대로 수출 소폭 감소 예상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 미국 내 자체 석유제품 공급 증가로 수입의존도 낮아질 전망

 중 국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4.3%	2018년	1,622억(26.8%)
		2019년(e)	1,691억(26.9%)

미중 통상 분쟁,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소비와 투자는 위축 전망이나, 대외개방 확대 정책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Year	Export Value (Billion USD)	Growth Rate (%)
2014	1,453	-0.4
2015	1,371	-5.6
2016	1,244	-9.3
2017	1,421	14.2
2018	1,622	14.1
2019	1,691	4.3

▶ **호조품목** 일반기계, 컴퓨터, 섬유류,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 **부진품목**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가. 2019년 시장여건

□ '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2~6.4%로 전망

* IMF 6.2%, OECD 6.4%, World Bank 6.3%, Global Insight 6.3% 등

○ (소비) 가계부채 증가,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GDP 대비 가계부채: ('15)39.2%→('16)44.9%→('17)49.0%

* '18.1~3분기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27.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성장하였으나, 4분기 이후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 (투자) 지방정부 부채감축, 공급과잉 조정 등 정책적 영향 및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로 투자 성장 제약

○ (정책) 대규모 감세, 금리인하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을 병행 - 부채증가, 자본이탈 우려 등 리스크 요인으로 통화정책은 제한적

□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외개방 확대 추진

○ (수출) 수출입관세 인하 등 대외개방 확대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FDI) 첨단산업으로의 투자유지활동 강화, 대외개방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해외투자) 양적인 확대에서 나아가 질적 다양성 확대 전망
 -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Gree, Haier 등)는 '수출 대체지' 물색과 함께 '해외공장 건설'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나. 2019년 수출환경

□ 중장기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으로 첨단산업분야 협력기회 증대 전망

-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전략 추진 및 기업들의 가공무역 기지이전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가속화 전망
- 중국기업의 적극적 R&D 투자를 통한 기술 고도화로 고품질 부품·소재 및 첨단기술의 협력수요 확대
 - * 협력수요 확대분야: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산업용 로봇, 가스터빈, 스마트 제종 등

□ 中 정부, 대외개방과 수입확대를 통해 통상분쟁의 영향 최소화 도모

- 3차례의 수입관세 인하('18.7월, 11월, '19.1월), 수입박람회('18.11월, 상하이) 등 수입확대 정책을 통한 균형무역으로의 전환 시도
-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산업 및 서비스분야 외국기업 진출 장려

□ 소비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유통채널 고도화로 시장 성장 지속

- 과중한 가계부채, 소비심리 위축 등 우려가 있으나, 수입시장 확대, 전자상거래 시장 성숙, 유통채널 고도화로 소비지출의 증가세는 지속 전망
 - * 中 전자상거래 시장(조 위안): ('16)4.7→('17)6.1→('18e)7.5→('19e)9.1 (iResearch)
 -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물류를 융합한 신유통 비즈니스 모델 확산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컴퓨터 (소폭증가) 섬유류,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 초과)	○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자동화 기계 수요 증가 ○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업계 호황으로 기존 설비 갱신과 신규 설비 구축이 확대될 예정
컴퓨터 (813)	대폭증가 (10% 초과)	○ 4년 이상 사용된 컴퓨터가 약 1.5억 대로 컴퓨터 교체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되며 시장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될 전망
섬유류 (4)	소폭증가 (3~10%)	○ 미중 무역마찰로 일부 제품 구매선을 한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됨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기술적 한계로 컴퓨터 메모리칩 수입이 지속 확대될 전망 ○ 중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470억 위안을 투입했고 중국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 될 예정임 (CSIA 중국반도체협회)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 중국 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로 한국산 고품질 경유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 추세

□ (소폭감소)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 부동산 및 건설 산업 투자 둔화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제품 대미 수출이 줄어들며 한국 제품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석유화학 (21)	소폭감소 (0~-10%)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됨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으로 65인치 이상의 액정 패널 수입의존도가 줄어들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감소 (0~-10%)	○ 중국 현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포화 등으로 수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
가전 (82)	소폭감소 (0~-10%)	○ 중국 현지 브랜드의 성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가전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전망

 E U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2.4%	2018년	577억(9.5%)																					
		2019년(e)	591억(9.4%)																					
고용 개선, 내수 확대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둔화위험 병존, EU의 FTA 확대에 경쟁 심화 전망		 <table><caption>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thead><tr><th>연도</th><th>수출액(억 달러)</th><th>증감률(%)</th></tr></thead><tbody><tr><td>2014</td><td>545</td><td>5.4</td></tr><tr><td>2015</td><td>552</td><td>1.3</td></tr><tr><td>2016</td><td>516</td><td>-6.5</td></tr><tr><td>2017</td><td>599</td><td>16.1</td></tr><tr><td>2018</td><td>577</td><td>6.7</td></tr><tr><td>2019</td><td>591</td><td>2.4</td></tr></tbody></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545	5.4	2015	552	1.3	2016	516	-6.5	2017	599	16.1	2018	577	6.7	2019	591	2.4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545	5.4																						
2015	552	1.3																						
2016	516	-6.5																						
2017	599	16.1																						
2018	577	6.7																						
2019	591	2.4																						
▶ 호조품목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류, 컴퓨터 ▶ 부진품목 무선통신기기, 가전,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선박류																								

가. 2019년 시장여건

□ 유럽 경기성장세 지속되나 EU내 갈등, 긴축정책 등 불확실성 잔존

- '19년 1.9%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 유지 전망
 - 고용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안정
 - * '19년 민간소비 1.8% (독일 1.9%, 폴란드 3.4%), 설비투자 3.9% (독일 3.4%, 이탈리아 3.1%, 루마니아 5.0%) 증가 전망
 - 실업률은 '18.10월 6.7%로, '19년 하락세를 유지하여 6.6% 기록 전망
 - * 실업률 추세(%): ('17.4Q)7.3→('18.1Q)7.1→('18.2Q)6.9→('18.3Q)6.8→('18.10월) 6.7

< 유럽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EU	0.3	1.8	2.3	2.0	2.4	2.1	1.9
유로존	-0.2	1.4	2.1	1.9	2.4	2.1	1.9

* 자료: EU 집행위 경제전망보고서(2018년 11월 발표치)

-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 잠재
 - 브렉시트로 영국-EU 간 불확실성 지속돼 對영국 투자 및 내수 위축 위험
 - ECB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18년 종료했으며, '19년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미·EU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위험 잔존

나. 2019년 수출환경

□ 유로화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전망

- 유로화는 양적완화 축소, 경기개선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강세 전망

< '19년 환율 전망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달러/유로(평균)	1.13	1.18	1.15	1.20	1.18
원/유로(평균)	1,276	1,301	1,288	1,320	1,304

* 자료: Bloomberg, LG경제연구원

□ EU의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전망

- 한-EU FTA('11.7월 발효) 이후 '15년부터 무역적자 감소 및 한국산 인지도 제고 중
- '19년 EU와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FTA 발효 예상, 경합품목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
 - * 주요 경합품목: (일본) 승용차, 자동차부품, (베트남) 전자집적회로, 전화기, (싱가포르) 전자집적회로, 석유·역청유, 백신·면역물품 등
 -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기업은 수혜 예상

< '19년 발효 예상 주요 FTA 현황 >

구분	현황	전망
EU-일본(EPA)	서명완료('18.7.17.)	'19년 3월 발효 전망
EU-싱가포르	서명완료('18.10.19.)	'19년 상반기 발효 전망
EU-베트남	서명완료('18.10.19.)	'19년 말 또는 '20년 초 발효 전망

□ 소비재, 전자, 기계·부품류, 의료기기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유럽 시장의 내수 회복과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개선으로 IT·전자, 식품, 소비재, 기계류, 기계부품 등의 對유럽 수출 호조세 지속
 - 디지털화(디지털 융합분야 협력수요), 의료현대화(동유럽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활발)를 위한 수요 증가세
 - * '17-'18년 연속 수출증가 품목건수: (IT·전자) 32건, (식품) 21건, (소비재) 21건, (기계류) 20건, (기계부품) 20건 (MTI 4단위 205개 품목 기준)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석유화학, 반도체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류,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21)	대폭증가 (10% 이상)	○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산 대비 가성비가 높은 한국산 고부가가치 품목(고급 합성수지 등) 수요 증가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 이상)	○ AI,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수요 증가세 지속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유럽 경기 호조로 기계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18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및 미중 무역분쟁이 설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자동차 업계 통상 임금 및 공급 물량 축소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수출이 회복될 전망
섬유류 (4)	소폭증가 (3~10%)	○ 경기 호조에 따른 생필품 수요 증가 및 한국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호조세 예상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기업용 PC 수요 증가 및 MCP(Multi Chip Package), SSD(Solid State Drive) 수출 증가

□ (소폭감소) 평판디스플레이, 선박류, (대폭감소)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 한국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세 예상 ○ 시장 포화 및 경쟁 심화로 시장 내 점유율 감소 전망
선박류 (746)	소폭감소 (0~-10%)	○ 선박, 조선기자재 시장 침체 및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수출 부진 예상
무선통신기기 (812)	대폭감소 (-10% 이상)	○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부품 현지 조달 비중 확대에 의해 수출 감소 예상
가전 (82)	대폭감소 (-10% 이상)	○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경쟁우위 하락

 일 본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3.6%	2018년	306억(5.1%)																					
		2019년(e)	317억(5.0%)																					
소비세율 인상, 설비투자 증가세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내수침체, 엔화약세로 우리기업의 수출증가율은 3.6%에 그칠 전망		 <table border="1"><thead><tr><th>연도</th><th>수출액(억 달러)</th><th>증감률(%)</th></tr></thead><tbody><tr><td>2014</td><td>322</td><td>-7.2</td></tr><tr><td>2015</td><td>256</td><td>-20.5</td></tr><tr><td>2016</td><td>244</td><td>-4.7</td></tr><tr><td>2017</td><td>268</td><td>9.8</td></tr><tr><td>2018</td><td>306</td><td>14.2</td></tr><tr><td>2019</td><td>317</td><td>3.6</td></tr></tbody></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322	-7.2	2015	256	-20.5	2016	244	-4.7	2017	268	9.8	2018	306	14.2	2019	317	3.6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322	-7.2																						
2015	256	-20.5																						
2016	244	-4.7																						
2017	268	9.8																						
2018	306	14.2																						
2019	317	3.6																						
▶ 호조품목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류, 가전 ▶ 부진품목 자동차, 컴퓨터, 선박류																								

가. 2019년 시장여건

□ 일본의 내수 침체로 '19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일본은행, '18.7월): ('18)1.3~1.5%→('19)0.7~0.9%→('20)0.6~1.0%

○ 5년만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계소비 둔화 전망

* '14.4월 소비세 1차 인상 5%→8%, '19.10월 2차 인상계획 8%→10%

- 1차 소비세 인상 당시 소비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 발생
- 2차 소비세 인상 시에는 필수품목 경감세율 도입 등으로 개인소비에 타격이 '14년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차 소비세 인상 시 가계부담 약 2조엔 증가 우려

- '19년 상반기 소비세 인상 전, 일시적 수요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19년 증가세 둔화 전망

- '19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인상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 둔화 전망

* '18년 일본의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및 일반 기계부품, 반도체 제조용 정밀장비를 중심으로 21.6% 증가함.

- 올림픽 관련 투자,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계화, 무인화에 집중 예상

□ 개방적 통상정책으로 수출 상승세 지속

- 미국발 무역마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상승폭이 미미해 일본의 수출증가는 지속될 전망
 - * 일본의 수출 증가율 추이(%): ('15) 3.5→('16) -7.4→('17) 11.8→('18.11) 4.9
- 일본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의 미국 수입관세 인상여부가 '19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 일본 자동차 총 수출 대수의 40%에 달하는 174만대를 미국에 수출
- CPTPP, 일-EU FTA, 미-일 TGA 등 무역협정 확대로 교역 증가 전망
 - * 일본은 현재까지 21개 국가 및 지역과 18개의 EPA를 발효 및 서명 완료
- CPTPP는 '18.12.30일 발효, 일-EU FTA는 '19년 3월 발효 예상
- 일본과 미국은 '19.1월부터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개시 예정

나. 2019년 수출환경

□ 소비세 인상으로 산업 전반적 침체 우려

- 소비세 인상 직전 일시적 소비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식품·일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큰 영향이 없는 반면, 내구재는 지출 감소 예상

□ 엔화 약세로 인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원/엔 환율 하락 전망
 - 일본의 설비투자 수요는 유지되나, 엔저로 인한 우리제품이 가격 경쟁력은 약화

□ 유통시장의 변화와 SNS를 활용한 구매패턴 변화

-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10년 2.8%에서 '17년 5.8%로 상승
- SNS 이용자수가 증가하며, SNS가 소비 플랫폼으로 변모 중
 - * 전체 인구 중 SNS 이용자 비율: ('13) 56.4% → ('17) 72.1%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섬유류,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공작기계 수주액 증가추세 지속, '25년까지 2조엔 규모로 시장 성장 전망 (일본공작기계공업회)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건설용 철강재 수요 증가 * '19년 일본 내수(강재 기준)는 6,480만 톤(+0.5) 예상(세계철강협회)
섬유류 (4)	소폭증가 (3~10%)	○ 높은 가격경쟁력과 한류에 힘입어 한국 기업 일본 진출 확대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소비세 인상('19.10)전 막바지 수요 발생 가능 ○ 고령화, 1인 가족 증가로 에너지 절약 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일본전기공업회)

□ (현상유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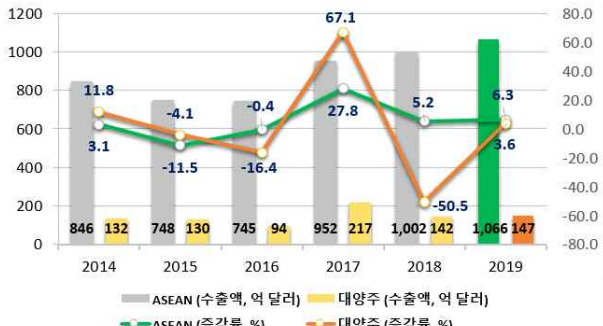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21)	현상 유지 (0~3%)	○ LDPE, HDPE는 수요처 재고누적으로 수출 감소, PVC는 건설 수요와 공공 투자 확대에 증가세 유지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 유지 (0~3%)	○ '분리계획'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늘어나 판매 감소세가 예상되나 일부 지역과의 교역량은 호조세 전망 * 분리계획: 단말기는 할인하지 않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
반도체 (831)	현상 유지 (0~3%)	○ 설비투자가 최대 20%까지 축소되며 한국산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나 자율운행용 및 가전용 반도체 수요는 증가 예상
석유제품 (133)	현상 유지 (0~3%)	○ 전기자동차, 연비개선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단가 감소 전망 ○ 물동량은 견조세 유지 전망

□ (소폭감소)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컴퓨터 (813)	소폭감소 (0~-10%)	○ 저출산 및 고령화, 교체주기 장기화, 스마트폰 대체 등으로 개인용 PC 수입 수요 감소 (MM종합연구소)

 ASEAN 오세아니아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6.3%(ASEAN) 3.6%(오세아니아)	ASEAN	2018년	1,002억(16.6%)
			2019년(e)	1,066억(17.0%)
		오세아니아	2018년	142억(2.3%)
2019년(e)	147억(2.3%)			

안정적 경제성장, 산업인프라 투자 및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소비재 및
기계·부품류 수입 증가로 연계,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Year	ASEAN (수출액, 억 달러)	Oceania (수출액, 억 달러)	ASEAN (증감률, %)	Oceania (증감률, %)
2014	846	132	3.1	11.8
2015	748	130	-11.5	-4.1
2016	745	94	-0.4	-16.4
2017	952	217	27.8	67.1
2018	1,002	142	5.2	-50.5
2019	1,066	147	6.3	3.6

▶ **호조품목** (ASEAN)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오세아니아)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석유제품

▶ **부진품목** (ASEAN) 선박류, (오세아니아)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반도체, 선박류

가. 2019년 시장여건

- ASEAN과 대양주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
 - (ASEAN) 역내 경제통합(AEC) 본격화, 대외교역 확대와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로 '19년 ASEAN 경제성장률은 5.2% 유지 전망
 - (대양주)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호주), 부동산 가치상승(뉴질랜드) 등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

< ASEAN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싱가포르	5.1	3.9	2.2	2.4	3.6	2.9	2.5
베트남	5.4	6.0	6.7	6.2	6.8	6.6	6.5
인도네시아	5.6	5.0	4.9	5.0	5.1	5.1	5.1
태국	2.7	1.0	3.0	3.3	3.9	4.6	3.9
말레이시아	4.7	6.0	5.1	4.2	5.9	4.7	4.6
필리핀	7.1	6.1	6.1	6.9	6.7	6.5	6.6

< 오세아니아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호주	2.2	2.6	2.5	2.6	2.2	3.2	2.8
뉴질랜드	2.2	3.2	4.2	4.1	3.0	3.1	3.0

* 자료: IMF('18.11월)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지속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

- ASEAN5 국가를 중심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이점, 우호적 투자환경을 활용하는 글로벌 생산기지 설립 투자 활발
 - * 對ASEAN 외국인 투자규모(억 달러): ('15)1,217→('16)1,226→('17)1,356(10.7%↑)
- 전력, 운송 등 산업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 활발
 - (인니)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 '15~'19)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추진
 - (베트남) '20년까지 고속도로 및 철도 개발 로드맵 수립
 - (말레이시아) 수자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도시개발 분야 프로젝트 활발
 - (호주) 향후 10년간 국가 중점 인프라 건설에 750억 호주달러 투자

□ CPTPP 발효,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18.12.30일부로 발효
 - * 회원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세계 GDP의 13.5%,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역 탄생
- 중국 주도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재부상
 -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19년 최종 타결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18.11.14, 싱가포르)
-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
 - (인니·싱가포르) 미·중 양국에 대한 높은 통상 의존도로 경기 침체 우려
 - (베트남) 노동집약산업(섬유·의류)를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 예상
 - (필리핀) 중국산 대체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 (호주) 중국이 주요 수입원인 철광석, 석탄의 가격 대폭 하락 우려

나. 2019년 수출환경

□ (ASEAN) 한류 수혜 소비재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 증가 기대

- 한류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호조
 - 화장품, 의류/패션 등에서 한국 제품 인지도 및 선호도 지속 증가
 - * 한국 화장품의 對 아세안 수출 증가율 : ('15년)17.3% → ('16년)31.6% → ('17년)33.8% (한국무역협회)
 - Qoo10, Lazada, Shopee 등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의 활성화에 따라, 국산 화장품·패션용품·식품 등 유망 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 전망
- ASEAN 중 주요 수출시장(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의 수출여건 변화
 - ASEAN 회원국 중 베트남(50.1%), 싱가포르(12.2%), 필리핀(11.1%)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대 ASEAN 전체 수출의 약 73.5% 차지
 - (베트남) '18년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생산에 소요되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자기기와 의류, 가방, 신발 등의 노동집약 제조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 많은 품목 군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싱가포르의 對 한국 수입 상위 3개 품목* 모두 감소
 - * 전자직접회로(HS 8542), 석유와역청유(HS 2710), 반도체기기(HS 8486)
 -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부품 분야 제조업 부흥* 모색함에 따라 각종 기계류에 대한 수입 증가 기대
 - * CAPS(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 6년 간 모델 당 20만대 이상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90억 페소(1억 7,000만 달러)의 세제혜택 제공(도요타, 미쓰비시 참여)

□ (대양주)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 심화되는 한편, 한국산 소비재 선전

- CPTPP 등 호주의 적극적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對 호주 수출경쟁이 점차 심화될 전망
 - CPTPP 발효 시 품목 수 기준 95~100% 수준의 높은 자유화가 이뤄질 예정으로, CPTPP 회원국과 호주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전망
 - * 한-호주 FTA('14년 12월 발효)에 따라, 양국 간 전체 교역품목의 99.4%의 관세 철폐
-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등 한국산 소비재 수요 꾸준히 증가
 - 호주 내 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김, 소스, 라면, 스낵류 등 한국식품 또한 꾸준한 수요 유지 전망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① ASEAN

□ (대폭증가)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	대폭증가 (10% 초과)	○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 수출 증가
가전 (82)	대폭증가 (10% 초과)	○ 한국제품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중산층 소득 증가로 스마트 가전 시장 확대 예상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제조업 경기 호조가 예상되며 각종 기계류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나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건설경기 회복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입 수요 확대 ○ 베트남은 한국 철강제품 비관세 장벽 조사에 착수, 수출규모 소폭 감소 전망
석유화학 (21)	소폭증가 (3~10%)	○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제품 수요 확대 전망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전자제품 시장 및 IT 수요 확대에 따라 한국산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자동차 시장 호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 ○ 한국 자동차 제조 회사, 인니에 연간 20만대 규모 생산 공장 설립 추진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IT 기술 발전에 따라 컴퓨터 수요 지속 확대 전망

□ (소폭감소)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소폭감소 (0~-10%)	○ 현지 자체생산 비중 증가 및 중국산 선박과의 경쟁으로 한국산 선박 수입 감소 가능

② 오세아니아

□ (대폭증가)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류, 가전,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대폭증가 (10% 초과)	○ '19년에도 신규 휴대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최근 5년간 호주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Apple이 점유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호주 농가 가뭄해갈 및 농업 생산량 증가로 기계류 수출 소폭 증가 예상되나 시장경쟁은 심화될 전망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FTA에 따른 관세철폐, 내수 자동차 생산 폐쇄 등의 여파로 수입 규모 확대될 전망
섬유류 (4)	소폭증가 (3~10%)	○ 의류, 섬유, 순면 등 한국산 직물 수입 수요 증가 예상 * 한-호주 FTA로 '18.1.1부 일부 직물 섬유 품목 관세 대부분 철폐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신기술 접목된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 지속 증가 예상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 노후화로 인한 호주 정제시설 폐쇄 및 석유제품 생산 감소로 해외 석유제품 수입 물량 증가

□ (소폭감소) 철강제품,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 건설경기 침체 및 현지기업 보호 기조 지속 ○ 수입 철강제품 반덤핑 규제 강화로 수입 수요 소폭 감소 예상
선박류 (746)	소폭감소 (0~-10%)	○ '18년 한국 수입 규모 대폭 감소, '19년은 해양구조물 부품 위주로 수요가 이루어질 전망

 인도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10.9%	2018년	156억(2.6%)
		2019년(e)	173억(2.8%)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미국 금리변동에 따른 물가환율 리스크 존재하나, 제조업 중심의 생산 활황, 소비·교역 호조, 고용 안정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호조품목** 일반기계,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섬유류, 컴퓨터, 석유제품

▶ **부진품목**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가. 2019년 시장여건

□ '19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4~7.6%로 전망

* IMF 7.4%, ADB 7.6%, 인도 중앙은행 7.6% 등

- (산업)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
* 제조업 성장률(%): ('17)5.0→('18.1Q)9.1→('18.2Q)13.5, * PMI: 13개월째 50 상회, (8월)51.7, (9월)52.2
- (금리) 유가상승과 루피화 절하 등으로 인도 중앙은행은 '18년 두 차례(6,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변경
- (물가) 관리목표(4%±2%) 내에서 안정적이나, 유가상승에 따른 인상압력 상존
- (총선) '19년 4월로 예정된 총선거에서 현 정권(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추진)의 재집권 여부에 관심 집중

□ 환율 리스크 및 무역수지 적자는 경기하방 요인

- (환율) 미 연준이 '19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 절하 및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 루피화 환율: ('18.1)63.7→('18.6)67.8 →('18.12)70.8
- (교역) 인도의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원유 등 원자재 수입도 증가, 총수입의 25%에 달하는 원유의 가격 상승 시 무역 적자 폭 확대 예상

나. 2019년 수출환경

□ Make in India 정책 추진과 Next China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중간재 수요 확대

- 타 신흥국 대비 인도경제는 건실하다는 평가, 제조 기업들의 脫중국화가 가속될 경우 생산거점이 인도로 전환될 가능성 증대
- 미국, 일본,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對인도 FDI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간재 수출 증가 예상
 - '19년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인도 제3공장 건설완료, 삼성전자 공장 증설 등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와 현지 인프라 구축 수요 확대 등으로 일반 및 건설기계의 對인도 수출도 확대 예상

□ 한-인도 경제교류 활성화 및 CEPA 개정효과 기대

- 인도는 우리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정상 방인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18.7월 한-인도 양국 정상은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을 '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합의
-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연내 타결 시 확대 양허 품목 중심 수출 증가 기대
 - * '16년 6월부터 '양허품목 확대'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위한 협상 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의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수출품목 다변화 기대

□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강화

- 인도 정부는 루피화 절하 및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우려, 주요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인상
 - * 최근 관세인상조치 : ('18.9월) 가전제품, 신발류 등 19개 품목, ('18.10월) 통신장비 등 4개 품목
 - * '18년 상반기 기준, 인도는 반덤핑 333건 부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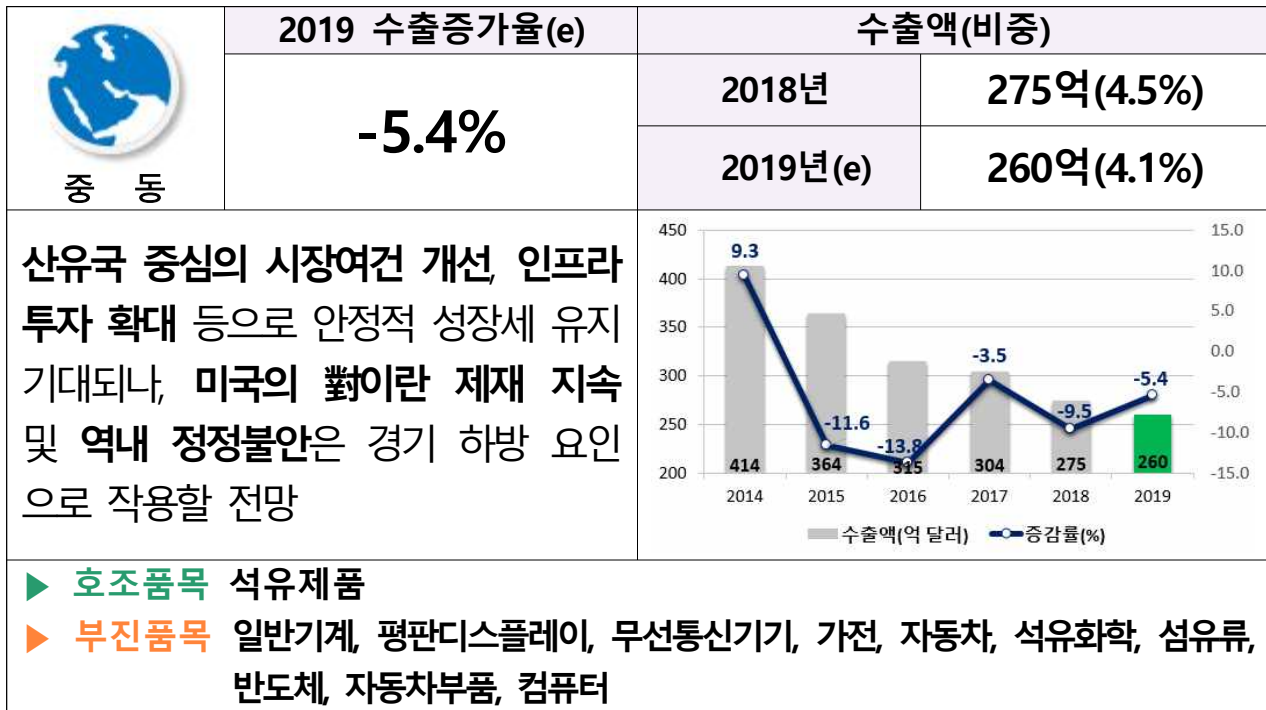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석유화학,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 초과)	○ S사 공장증설, K사 신규투자로 기계설비 수요 증가 ○ 의료보험 확대 및 병원 인프라 구축으로 의료기기 수출 증가 기대 (CEPA 적용 시 기본 관세 0%)
철강제품 (61)	대폭증가 (10% 초과)	○ 자동차, 전기전자 시장 성장으로 철강 수요 증가 ○ 한국, 일본은 CEPA 적용 대상국으로 바이어 선호도 높음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 초과)	○ 현지 생산 인프라가 열악해 수입의존도 높음 ○ 완제품 수입관세 상향으로 부품류 수입 확대 추세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10% 초과)	○ 한국 기업 K사의 신축공장 가동 계획으로 수출 증가 예상
석유화학 (21)	소폭 증가 (3~10%)	○ 한국산 화학제품 수입규제를 확대 중이나 건설 및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성장으로 수입 수요 확대 예상
석유제품 (133)	소폭 증가 (3~10%)	○ 윤활유 중심의 수요 확대와 유가 안정세로 석유제품 수출 소폭 증가 전망

- (소폭감소) 자동차 (대폭감소)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소폭감소 (0~-10%)	○ 인도는 완성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인도 자동차 수출은 미미한 상황 * '16년 인도는 한국을 제치고 승용차 생산국 6위 달성 승용차 판매량 증가 추세
무선통신기기 (812)	대폭 감소 (-10% 이상)	○ 무선통신기기 관세 인상으로 대인도 수출 급감 * '17년 7월 관세인상에 이어, '18년 10월 HS8517 세부품목 4개에 대해 관세 재차 인상
가전 (82)	대폭 감소 (-10% 이상)	○ 인도정부는 전자제품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18.9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의 기본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



가. 2019년 시장여건

□ 산유국 중심의 시장 여건 개선으로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은 '18년 2.6%에서 '19년 3.3%로 상승 전망

- (유가) '18.5월 미국의 이란제재 발표 이후 유가 급등했으나, '19년에는 유가 상승 폭 둔화되거나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 상존
 - 향후 미국의 對이란 제재,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른 원유 수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이행 정도에 따라 유가 변화 추세 결정될 것으로 예상
 - * 유가 추이(두바이유 연평균, US\$/bbl) : ('16년) 41.41 → ('17년) 53.18 → ('18년) 69.66
 - * '18.11.13일 OPEC 월간보고서, '19년 석유수요 증가분(하루평균)을 기 전망보다 7만 배럴 줄어든 129만 배럴로 예상
- (위협요인)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및 카타르 단교 사태 장기화, 주요국 환율 불안 및 시리아-리비아-예멘 내전 등 정정 불안이 지역경제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
- (긍정요인) 유가 상승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 회복 움직임과 일자리 창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POST-OIL시대를 대비한 산업다각화 및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추진

- 중동 각국, 탈석유시대를 대비한 장기 경제발전 전략 추진
 - *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 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 요르단 디지털 경제계획 2025 등
- ICT·관광·의료·교육·금융·신재생에너지 등 비탄소분야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 기반 강화
- 부품·원부자재 자체 조달 확대 등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및 자국민 고용 장려 정책 강화
 - * 사우디 ARAMCO '20년까지 자국민 고용 70%, '21년까지 자국산 조달 비율 70%달성 목표
 - *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 프로젝트 입찰시 현지생산, 조달, 채용 등을 계량점수화, 고득점사에 우선협상권 부여
 - * 쿠웨이트 프로젝트 기자재 중 30% 이상을 현지 제품으로 사용 의무

나. 2019년 수출환경

□ 프로젝트 시장 회복으로 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산유국 재정 건전화 및 국고 수입 증가에 따른 중단 프로젝트 재개, 전후 재건(이라크, 리비아) 및 민생안정, 생활환경 개선 관련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
- 대형 국제 이벤트(2020 두바이 엑스포, 2022 카타르 월드컵) 준비 관련, 상업시설 및 교통·숙박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대

□ 정치외교적 외부요인에 따른 중계 무역 시장 여건 변화

- 對이란 제재 부활 및 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로 UAE(對이란 및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對카타르) 등 우리 기업의 재수출 시장 축소 우려
 - * 카타르 : 단교국(UAE,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
 - * 이란 : UAE는 이란의 제2 수입대상국으로 '17년 기준 연간 수입의 13% 비중을 차지
- 요르단이 對이라크·시리아 국경 재개를 통해 전통적인 중계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영향 본격화로 수출 급감 불가피

- 미국이 이란과의 자동차부품, 원유, 금속 등 주요 산업재·원료의 교역 금지
 - '18.10월 이후 우리나라 13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 중단된 상황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 비제재품목인 식료품, 제약, 의료기기 등도 이란 정부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매우 제한적
- 이란은 자국 내 조립·생산을 위한 반제품·부품 중심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 제재 하에서는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대부분의 품목에서 교역 중단 및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 예상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제품 (133)	소폭 증가 (3~10%)	○ 이집트의 다양한 석유 관련 프로젝트로 수입 수요 증가 예상

□ (소폭감소)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류, 자동차부품, 컴퓨터 (대폭감소)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소폭 감소 (0~-10%)	○ 사우디인 의무고용, 외국인 비용 등에 따른 외국인 대거 이탈로 수입 수요 감소 * '16년 이후 약 80만명의 외국인이 사우디를 떠난 것으로 집계
석유화학 (21)	소폭 감소 (0~-10%)	○ '18년 3분기 터키 환율급등으로 수입차량 채산성 악화
섬유류 (4)	소폭 감소 (0~-10%)	○ 터키 내 최대 정유시설 Star Refinery 완공으로 수입대체 효과 발생 예상 및 美 중동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자동차부품 (742)	소폭 감소 (0~-10%)	○ 이집트 정부의 섬유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자체 생산이 확대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	대폭 감소 (-10% 이상)	○ '17.6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배터리(HS850710) 대상 반덤핑 관세부과로 수출 부진 지속 전망
가전 (82)	대폭 감소 (-10% 이상)	○ 이집트 정부는 수입 억제 조치 시행 중, 수출입청(GOEIC) 공장등록제 도입은 TV 수출에 악영향 ○ '18년에 이어 UAE 소매 시장 규모 지속 축소 전망 ○ 사우디는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인증 변경 강화로 기존 재고 소진에 주력 전망

 중남미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3.4%	2018년	278억(4.6%)
		2019년(e)	287억(4.6%)

고용시장 개선, 물가 안정으로 중남미는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남미 신규 FTA 확대**로 수출 증가 전망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4	359	-1.1
2015	307	-14.5
2016	254	-17.3
2017	281	10.6
2018	278	-1.1
2019	287	3.4

▶ **호조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 **부진품목** 석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가. 2019년 시장여건

□ '19년 중남미는 2.2%의 완만한 경제성장 예상

- 고용시장 개선, 물가 안정화, 제조업 확장세 등 경기 호조세
 - * 실업률(ILO,%) ('17)8.3→('18e)7.8→('19e)7.6,
 - * 물가상승률(IMF,%) ('17)6.0→('18e)6.1→('19e)5.9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및 투자심리 회복으로 외국인 투자유입 증가 전망
 - * 對중남미 FDI(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십억 달러): ('15)187→('16)168→('17)162→('18e)165
- 아르헨티나의 역내 경제 비중이 낮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가 타 중남미로 전이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중남미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중남미	2.9	1.3	0.3	-0.6	1.3	1.2	2.2
브라질	3.0	0.5	-3.5	3.5	1.0	1.4	2.4
멕시코	1.4	2.8	3.3	2.9	2.0	2.2	2.5

* 자료: IMF('18.11월)

□ 멕시코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리스크 해소

- (멕시코) 여야 정권교체로 진보정권 출범, 환율 및 증시 안정세
- (브라질) 극우정권 출범, 시장개방, 무역협정확대, 관세인하에 우호적

□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교역대상국 다변화 노력

- NAFTA를 대신하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및 멕시코, 페루, 칠레가 포함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메르코수르(Mercosur) 정상회담('18.7월)을 통해 양 경제블록간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
 - * 회원국: (태평양동맹)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나. 2019년 수출환경

□ 한-중남미 신규 FTA 확대로 우호적 교역 여건 조성

- 한-중미 FTA(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19년 내 발효 기대
 - * FTA 정식서명('18.2.21)→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국회비준 완료
- 한-콜롬비아 FTA 발효 3주년으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33개 품목 관세 추가 철폐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 및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 * 무역협정 체결 시, 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약 24억 달러, 수입은 126억 달러 증가 전망

□ 한류 열풍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중남미 내 약 560개의 한류 동호회가 활동 중으로, 화장품 등 한류에 기반을 둔 소비재 수요 증가
- 한류붐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한류 마케팅 추진 가능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기계류,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기계류 (71,72,75,79)	소폭증가 (3~10%)	○ USMCA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해 투자 증가 예상,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어 설비투자 증가 전망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산 철강제품 수요 증가, 건설경기 및 자동차 등 제조업 경기 호조세
석유화학 (21)	소폭증가 (3~10%)	○ 제조업 활성화 추세,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수요 증대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사물인터넷,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 확대 ○ 에콰도르에서 LG 스마트 TV를 본격 생산하며 반도체 수입 증가 예상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 고사양 컴퓨터 수요 증가세, 콜롬비아 신정부의 교육 프로젝트 확대에 컴퓨터 수출 증가 전망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 에콰도르에서 옥탄가를 높이는 조치를 실행하여 한국산 나프타 수요 증가

□ (소폭감소)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소폭감소 (0~-10%)	○ 베트남,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제품 수입이 증가, 현지 생산 확대에 한국산 섬유류 수요 감소세 지속
평판DP (836)	소폭감소 (0~-10%)	○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확대 및 현지생산 증가 추세 ○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수입관세 폐지로 현지 생산이 감소하여 중간재인 평판DP의 수요 감소세
무선 통신기기 (812)	소폭감소 (0~-10%)	○ 무선통신기기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있으나, 중국산 등 저가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전망
가전 (82)	소폭감소 (0~-10%)	○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가전제품 생산 활발,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경쟁력 하락

 CIS	2019 수출증가율(e)	수출액(비중)	
	4.0%	2018년	108억(1.8%)
		2019년(e)	113억(1.8%)

서방의 對러 제재 지속, 유가 변동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 및 경기 회복 기조 유지 전망



▶ 호조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 부진품목 선박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 2019년 시장여건

□ 경제개혁·제조업육성 정책으로 '19년 국가별 1~5%대 성장 전망

- (러시아) 제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로 '19년은 1.2~1.8% 경제 성장 전망
 - * 명목 GDP 기준 CIS 11개국에서 러시아 경제비중은 약 75%
- (카자흐스탄) 각종 산업다변화 정책 프로그램 추진으로 '19년은 3.4%~3.7% 성장 전망
 - * 다만, 불안정한 환율, 원자재 수출 편중성, 대 러시아 경제의존도로 당분간 고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
- (우즈베키스탄) '18년 신정부의 경제개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19년은 5% 내외 성장 전망
 - * '17년부터 실시한 환율 단일화, 외환 자유화 등 금융 환경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제 개방도 확대 중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4선 성공('24년까지 집권)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집권 체제로 기존 경제개혁 프로그램 지속 추진 전망

□ 자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CIS 경제구조상, 유가 안정이 경제안정화의 관건

- '18년에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여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러시아는 '19년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63.4달러로 전망
 - *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의 GDP 비중은 약 20%, 수출 비중은 60%
 - *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부문의 GDP 비중은 16%, 수출 비중은 75%

나. 2019년 수출환경

□ 對러시아 서방경제제재의 효과

- * '18년 3월 미국은 對러 경제제재를 '19년 3월까지 연장, EU는 '19년 1월까지 연장
- (긍정) 러시아는 제조업육성과 산업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산업적·지역적 다변화로 수입 시장 확대 전망
 - * 신동방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추진
- (부정) 러시아 경제비중이 큰 CIS시장은 對러 제재와 같은 대외환경에 민감
 - * CIS 내 러시아의 경제 비중은 약 75%이며 서부 러시아 경제비중은 70%

□ CIS 주요국의 통상·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속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 제조업 육성과 산업다각화, 민영화 등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 중
 - * Doing Business 순위 변화('11년 → '18년) : 러시아(123 → 34), 카자흐스탄(59 → 34), 우즈베키스탄(150 → 68), 우크라이나(145 → 70), 벨라루스(68 → 48)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및 역내 가입국 확대 노력 지속
 - * 가입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의 통관 간소화 및 역외 공동관세 추진 정책 심화,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역내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 타진
- 한-EAEU FTA 사전 단계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러 협정 체결 예정
 - * '18년 8월 한-러 서비스 투자 협정 공청회 개최
 - * 의료,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과 비관세 장벽 완화 논의 예상
 - *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8%↑), 물류 산업(5.4%↑), 관광 산업(20%↑) 성장 기대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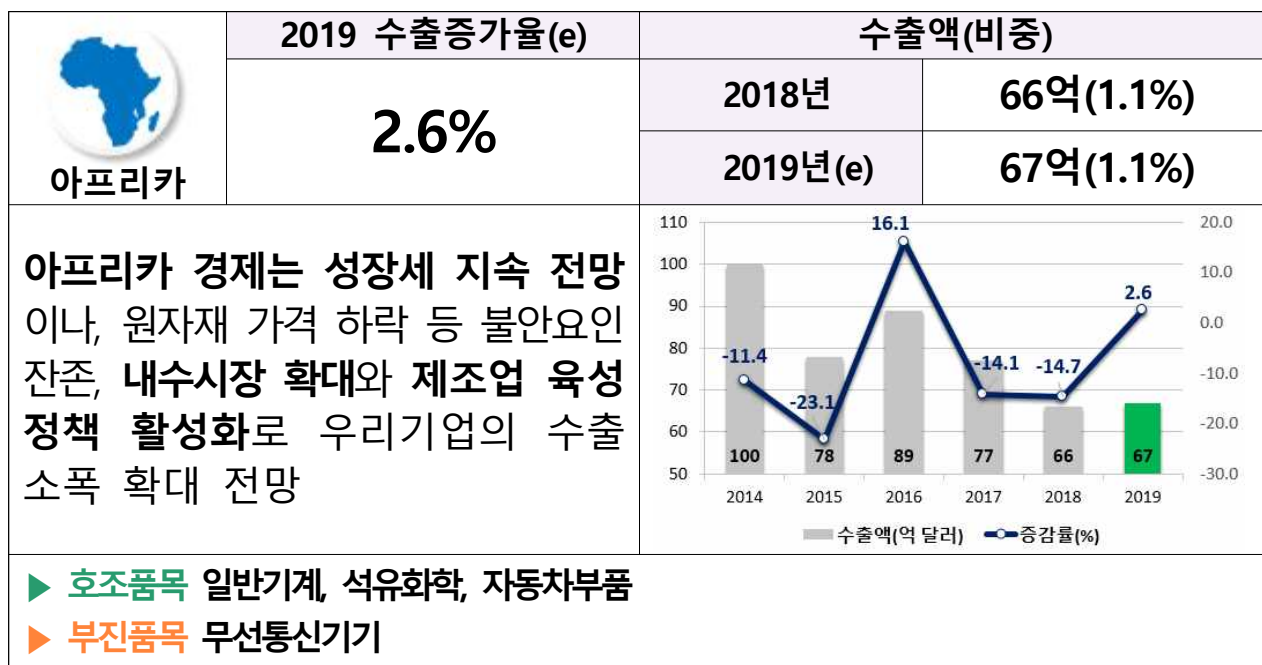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제조업 육성, 경제개혁 등 산업다변화에 의한 수요 증가 예상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러시아 내 높은 시장 점유율로 중소형차 판매 증가 전망

□ (현상유지) 철강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현상 유지 (0~3%)	○ 산업다변화, 인프라 개선으로 철강 수요 유지 전망 ○ 러시아 세이프가드 발효 및 우즈베크 대형 프로젝트 개발완료로 수입 수요는 소폭 감소될 전망
석유화학 (21)	현상 유지 (0~3%)	○ 석유화학 클러스터 건설이 장기간 지속될 시 한국산 제품 수요는 유지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	현상 유지 (0~3%)	○ 러시아의 국내생산성 증가로 수입 규모 축소가 예상되나, 몽골 및 중앙아시아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
반도체 (831)	현상 유지 (0~3%)	○ 러시아 세라믹 기판 생산 확대로 반도체 수입 증가 전망
자동차부품 (742)	현상 유지 (0~3%)	○ 러시아 CKD, SKD 자동차 조립 생산 현상 유지 전망 ○ 한국 업체 H사, K사의 에프터마켓 현상 유지 예상
석유제품 (133)	현상 유지 (0~3%)	○ 러시아 수입 대체화 정책 기조로 수입규모 감소 추세 ○ 중앙아시아는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석유제품 수입 유지 전망

□ (소폭감소)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 감소 (0~-10%)	○ 저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 2019년 시장여건

□ '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는 3.8% 성장 전망

- 농업 생산성 증가,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 증가, 중국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증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 * 물가상승률은 '17년 11% 대비 '18년 8.6%, '19년 8.5%로 다소 안정 예상
- 남아공의 저성장세, 세계 철강가격 하락, 일부 신흥국의 통화위기 등 불안요인 잔존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성장률	5.2	5.1	3.3	1.4	2.7	3.1	3.8

* 자료: IMF('18.11월)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가시화에 따라 투자·교역 확대 기대

- 對아프리카 외국인투자 유입은 '18년 20% 증가한 약 500억 달러로 전망
 - AfCFTA 발효 시 '22년까지 역내 교역은 '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예측(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UNECA)

-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일본, 사우디, UAE 등과 협력 확대
 - *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
 - * (미국) 美 기업의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18.6월)

나. 2019년 수출환경

□ 소비자 구매력의 빠른 증가로 내수 소비시장 확대 전망

-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층 확대, 빠른 도시화로 소비시장 확대
 - * 아프리카 소비자 구매력은 '17~30년간 연평균 4% 증가 전망(세계평균 3%, Euromonitor)
-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등 소국 위주의 소비시장 급성장 전망
- 전통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라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도 급속도로 확산

□ 제조업 육성정책 활성화로 원료 및 중간재 수입 증가 전망

- 아프리카 전역 26개국 이상이 제조업 육성정책을 도입, 추진 중
 - 자국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적극 유치
 - * (남아공) BMW, 벤츠 등의 현지 공장투자 활발 (수단) 현지기업-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자동차조립, 백색가전 등 생산
 - 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계류, 산업재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

□ ICT 산업 및 모바일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

-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 무선통신의 보급으로 극복, 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률 급증 추세
 - * 스마트폰 보급률 '17년 34%에서 '25년 67%까지 성장 전망(GSMA)
- 모바일 금융업 발달과 더불어 모바일 결제시장은 ICT 산업을 견인, 기존 은행 대체 수단으로 부각
 - * '17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 케냐 성인의 70%가 모바일 결제 이용
- 온라인 전문 유통망 성장 및 대형 유통기업의 온라인 진출도 증가
 - * 남아공의 Takealot, 나이지리아 Jumia 등 아프리카 현지 온라인 유통망이 시장 주도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 증가 (3~10%)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및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류 수출 증가 전망
석유화학 (21)	소폭 증가 (3~10%)	○ 제조업 활성화와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품질 인지도 제고로 對한국 수입량 증가세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 증가 (3~10%)	○ 자동차 부품 수입 및 현지 조립생산 방식이 확대되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세

□ (현상유지) 자동차, 철강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현상유지 (0~3%)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으로 직수출 감소 추세 ○ 한국산 SUV 또는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동차 수입은 꾸준히 유지될 전망
철강제품 (61)	현상유지 (0~3%)	○ 광산개발, 건설, 제조업 소요 철강재 수요는 증가세이나, 중국산 철강제품 유입으로 경쟁 심화
섬유류 (4)	현상유지 (0~3%)	○ 인구증가로 수요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저렴한 중국산 섬유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중고 의류에 대한 수입제재가 수입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소폭감소) 컴퓨터, 철강제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 기기 (812)	소폭 감소 (0~-10%)	○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심화 ○ 해외 공장 생산 제품 또는 정식 수입 통관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며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 감소 전망

작 성 자

-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 중국지역본부 이성호
- 유럽지역본부 윤유현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한경준
- 서남아지역본부 임태형
- 중동지역본부 오현탁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CIS지역본부 최진형
- 아프리카지역본부 이종민
- 무역정보팀 임성아
- 김건숙
- 송민주

Global Trade Report 19-002

2019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정보팀
 (02-3460-7402)
 I S B N | 979-11-6097-902-2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